

노래하고 이웃돕기 이보다 좋을수가!

바라밀현장

대구 '우리 여기에' 거리공연팀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언덕에~ 아기엽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5월 31일 대구 동대구지하철역 광장에서는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구경꾼은 불과 50여명 남짓 많지 않은 청중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아기엽소'를 노래하는 가수들

하던 어른들이 막무가내로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한다고 때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도 항상 웃으며 어른들의 한이 담긴 '한 오백년'에 장단을 맞추기도 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거리 문화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자선 음악회이자, 특별한 형식에 구



◇매주 토요일 대구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에서 거리공연을 하며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우리 여기에' 공연팀.

적은 청중이지만 가수들 웃음, 활기 넘쳐 생계 어려운 다섯 아이들에 정기적 후원

의 얼굴엔 웃음과 활기가 넘친다.

이들은 1년이 넘도록 동대구역 공연장에서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는 '우리 여기에' 거리공연팀. 매주 토요일이면 여덟명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거리공연을 한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기금을 모이기 위해서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밝고 맑은 곡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 하는 동요에서부터 '우리 여기에' 팀장이자 언더그라운드 가수 박창근씨의 대표곡 '이유'를 비롯해 가수 김광석, 한태수, 김민기씨의 곡 등 누구나 흥취위하고 좋아할 만한 노래들도 채워졌다.

가끔 공연도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구경

발자지 않는 이들만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박창근(32, 가수), 박성운(34, 가수), 성환우(39, 직장인), 손정호(36, 사회복지사, 4명의 프로급 가수)와 아마추어 소리꾼들이 모여 지난해 4월 결성한 '우리 여기에' 회원은 현재 공연을 준비하는 스텝까지 모두 10여명으로 늘었다. 모두 직장인이어서 매주 시간 내는 데 제약도 많지만 웬만한 일이 아니면 토요일은 항상 거리공연을 위해 비워놓는다.

'우리 여기에'는 장애를 가진 형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엄마와 살고 있는 정호, 병환중인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단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에게 맡겨진 영수,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보조를 받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예술이, 할머니 이모할머니와 함께 살

지만 한 사람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미지, 이렇게 다섯 아이들에게 매달 5만원씩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고 말하는 성환우씨는 "불합리한 사회제도로 인해 진정한 도움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도움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모금회가 생긴 이후 거리모금을 통한 후원이 불발이 돼버려 안타깝다"고 말한다.

여러차례 공연을 하다보면 약이나 열프, 스피커 등 고쳐야 할 것들이 하나 둘 생기지만 모금된 돈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이 철칙. 어린 이들의 코로는 백엔저리 동전하나, 어른스

의 꼬깃꼬깃한 찜뽕돈 1천원 한 장도 이웃을 돕고자 하는 정성이 깃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 3시간 공연을 통해 모금함에 들어오는 돈은 5-10만원선. 그나마도 대구지하철 사고가 생긴 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줄어, 다섯 아이들에게 보내줄 지원금도 뼈대하다. 그런데 적당히 놓은 돈이 있어 아직은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훗 이마저도 부족해지면 모두 자신의 주머니라도 털 거세다.

이들의 공연을 접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rtmusician.com/withus-intro.html)에서 만날 수 있다. (053753-8883, 대구=박원규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애니 파첸 돌마 (F)

독립과 불교가르침 보전위해 정진

1년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에 도착한 그녀는 꿈에 그리던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게 된다. 애니 파첸 스님은 이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히말라야를 넘어 중국을 탈출한 것은 달라이라마 성하를 밟고자 한 일념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성하를 모시고 공식 기자회견을 했을 때,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죠. 수감기간 중 성하를 친견하러는 꿈이 이뤄진 것입니다."

다람살라에 정착한 이후 애니 파첸 스님은 수행에 집중하면서 불성의 영원함, 초월, 자비, 용서 등을 더욱 내면화 시켰다. 아울러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티베트 난민들을 돕고자 하는 정성이 깃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 3시간 공연을 통해 모금함에 들어오는 돈은 5-10만원선. 그나마도 대구지하철 사고가 생긴 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쩍 줄어, 다섯 아이들에게 보내줄 지원금도 뼈대하다. 그런데 적당히 놓은 돈이 있어 아직은 도움을 주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훗 이마저도 부족해지면 모두 자신의 주머니라도 털 거세다.

이들의 공연을 접해보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rtmusician.com/withus-intro.html)에서 만날 수 있다. (053753-8883, 대구=박원규 기자

을 원하지 않았습니. 중국의 감옥에서 나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국 망명정부의 설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젊은 티베트인들에게 나의 체험담은 티베트 현대사의 중요한 증거이자 종교적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수감기간 동안의 고문 휴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지만, 애니 파첸 스님의 정신력만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티베트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열심히 강연하는 한편, 티베트 독립을 촉구하는 평화시위에 참석했다.

남은 여성들만 돕는 일에 발 벗고 나섰다. 독립운동의 이력과 선형이 알려지지 아니 파첸 스님은 다람살라에 살고 있는 많은 티베트 인들에게 영감을 되었으며, 외국 특파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기도 했다. 이때 기자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중국의 감옥에서 당신을 고문한 교도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지요?"



◇평화시위중인 애니 파첸 스님(왼쪽).

정착후 불성 더욱 내면화

티베트 알리는 일, 자신의 소명

이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하곤 했다. "중국의 감옥에서 당신을 고문한 교도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지요?"

애니 파첸 스님은 2000년, 자신의 일생을 다룬 책 <슬픈 산: 티베트 비구니 전사의 여행(Sorrow Mountain: The Journey of a Tibetan Warrior Nun)>을 출판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스님은 <슬픈 산>에서 이렇게 출간의 변을 밝히고 있다. "처음에 나는 출판

자의 일생을 회고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중국의 침략에 항거했습니다. 라사에서 평화적인 티베트 독립시위를 벌였으며,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보전하기 위해 정진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이야기는 남을 것입니다." 애니 파첸 스님은 이 책이 나온 지 2년뒤의 입적을 미리 암시하던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인생은 하늘의 번개나 풀잎의 이슬처럼 순간적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재물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김재경 기자

자비·사랑 함께, 이웃에게 새 생명을...

제4회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바자회'

화계사 인근 1만여 주민 참여 5천만원 수익

겨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데 뭉쳤다. 서울 수유동 화계사주지 성광와 송암교회(당회장 목사 박승화), 수유1동 천주교회(주임신부 이종남)가 함께하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바자회'의 네 번째 마당이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열렸다.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바자회장에는 신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기증품과 일반 사업체의 후원을 받은 옷가지들,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 50여 종의 물품이 시종종종다 평균 30~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자녀를 위해 운동복을 구입한 김순남(42, 성북구 수유2동) 씨는 "처음에는 한 번 하고 끝났겠거니 했는데 벌써 4년째 열린다는 사실이 놀랐다"며 "물건도 싸고 수익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쓴다고 해서 해마다 꼭 찾게 된다"고 말했다.

종교연합 바자회는 첫 해인 2000년,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2천여 만원으로 난치병에 걸린 동네 아이 7명을 도운 것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4천 8백만원, 지난해에는 5천 4백여 만원을 모아 모두 41명의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를 도왔다.



◇5월31일 열린 제4회 종교연합바자회'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하지만 종교연합 바자회의 더 큰 성과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얻게 되는 종교간 화합이다. 다른 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절이나 교회에 가는 것조차 꺼려워 했던 신도들도 해를 거듭할수록 함께 행사를 치루면서 정도 쌓이고 이

웃 종교에 대한 이해도 넓히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 바자회에는 지역주민 1만여 명이 참가해 5천여 만원의 수익금을 모았으며, 수익금 전액은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합니까?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늘 땅 맑은 기운이 머무는 곳!

개롱산 천왕봉의 정기가 머무는 도량!

도학사 산중 수련회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수행법을 통해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신 분들만 특별히 모십니다.

- 수행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또는 가족 단위로 주말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생명생수의 수행과정입니다. 각 수행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 내 외국인 단체 등 진정한 수행법을 알고 싶은 모든분들 모심. ※ 단체 (20인 이상 기준회비) 조정
- 참가회비** ◆ 2박 3일 : 10만원 ◆ 3박 4일 : 12만원 ◆ 4박 5일 : 15만원 ◆ 1 개 월 : 60만원
- 수행일과표**

시간	내용	시간	내용
4시	기상, 예불	오후 2시	불교기초교리
5시	선재초 및 참선	오후 3시	무술수련
7시	이침공양	오후 5시30분	저녁예불
8시30분	운력	오후 6시	저녁공양
10시	무술수련(태극선공)	오후 7시	(대체의학강의)
11시	워바사나 수행	오후 9시	취침
12시30분	점심공양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양리 86-1번지

도 학 사 도 학 선 원 주 지 光明道眼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전생의 인연으로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병치레를 일삼았던 스님은 겪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그러나 어느날 비몽사몽간에 꿈에 부처님께 서 나타나 "네 제자가 되면 몸의 병도 낳고 건강이 회복될 터인 부가에 귀의 하라."는 선몽을 주시고 떠난 후 출가를 결심하고 지금은 타계하신 은사스님과 인연을 맺고 불가(佛家)에 귀의하게 되었다.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 밝아도 눈을 뜨고 일어나지 않고 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느 작가 못지않은 독창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 시내에만 무료로 일반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에 때때로 인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외의 어느 건설사에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가서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신도님, 몸이 병이 있어 고생하시는 분이 달마도를 걸어 놓고 썼던 듯이 나아갔다고 하고 수백이 자란 된 등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현사를 찾은 광명시의 정명자(50세)신도는 귀띔한다.

지금도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홍의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달마도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도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로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현사 보현스님 협정